

'관광 1번지 목포' 속도 낸다

목재문화체험장·반려동물놀이터
평화광장 리모델링·문학박람회 등
현안 사업 연내 마무리 박차

■목포시 주요 현안 사업

7월	·평화광장 판타지쇼 23일 개막식 11월까지 토요일 밤8시~10시 ·고하도 해상데크 2차 분 개통 16m 높이 강화유리 스틸 만점
8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전시실·놀이터·체험장 등
9월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개장 3500㎡ 규모 250마리 수용
10월	·문학박람회 7~10일
12월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



목포시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조성중인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상반기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했던 목포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한 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달 평화광장에서 목포해상판타지쇼(이하 판타지쇼)를 개최한다.

시는 평화광장의 명물인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490㎡) 공연, 불꽃쇼가 한 데 어우러진 판타지쇼를 펼쳐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평화광장 리모델링 및 해상무대 준공과 어우러진 개막행사로 포문을 열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8시~10시 신나는 목포를 평화광장에서 선보인다.

고하도 해상데크 2차 분도 이달 말 개통할 예정

이다.

2차 분(길이 738m, 폭 2m)은 지난 2019년 11월 개장된 1차 분(1.08km, 폭 1.8m)의 반대방향으로 뻗어나간다. 2차 분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안전시설·표지판 설치 등이 진행 중이다.

길이가 1.82km로 확장됨에 따라 해상데크 이용자는 고하도 해안절벽, 유달산, 목포내항 등을 더욱 다양한 지점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차 분에서는 2개소에 설치된 강화유리(길이 16m) 위에서 스틸감을 느낄 수 있다.

8월에는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을 개장한다.

유달산 달성주차장 옆의 유리온실이었던 난전시관을 철거하고 조성된 체험장은 연면적 856㎡, 지하1층·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유아목재놀이터, 목재놀이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9월에는 부주산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 규모는 3500㎡로 약 2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10월에는 7~10일까지 4일간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문학박람회가 목포문학관, 원도심, 평화광장 등 목포 전역에서 개최된다.

12월에는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이 마무리된다. 인위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시설은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해 국제슬로시티 이미지와 연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들이 마무리 될 경우 '관광 1번지 목포'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 '애기범부채꽃 축제' 9일 개막



8월 1일까지 3000만 송이 손짓

신안군이 오는 9일부터 8월1일까지 압해읍 송공리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크로코스미아(애기범부채) 꽃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가 열리는 '천사섬 분재공원'에는 관람로를 따라 100만본의 크로코스미아 3000만 송이가 청초한 모습으로 피어오르고 있다.

이 곳에는 1만7000그루 애기동백숲 3.5ha도 조성돼 있다.

'청초',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란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크로코스미아는 붓꽃과에 속

하는 다년생초화로 7~8월에 긴타원형의 주홍색 꽃이 화려한 여름꽃이다.

신안군에서는 매년 '천사섬 분재공원' 내에 크로코스미아를 더 심고 가꾸어 국내 최대의 크로코스미아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5000만평의 바다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겨울에는 하얀 눈 속에 피어나는 애기동백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피어난 3000만 송이 크로코스미아 꽃을 감상하며 더위를 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 회산백련지 '활짝'...8월 18~22일 비대면 축제



상시 무료 개방 중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에 연꽃이 활짝 피어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피기 시작한 연꽃은 현재 만개해 10만여 평의 회산백련지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 곳에는 무안백련과 인취사백련, 흥련, 수련, 가시연 등 여러 종류의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중 무안백련은 7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오전에 피고 밤에는 꽃봉오리를 닫는 수생식물로 올해는 평년보다 개화시기가 일주일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회산백련지 입장료는 무료이며, 최근에는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자연을 즐기며 산책과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다.

무안군은 회산백련지에서 매년 연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한 축제를 올해는 오는 8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회산백련지에 순백의 연꽃이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코로나19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있다"며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다양화해 회산백련지를 무안의 대표적인 사계절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해남 우슬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해남 우슬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신축됐다. 26억원이 투입된 우슬 배드민턴장은 기존 실내 게이트볼장 2층에 증축했다. <사진>

연면적 2150㎡로, 7면의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공약으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에 이어 배드민턴장을 신설했다.

배드민턴장 신축으로 최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

는 배드민턴 종목의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도 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에 관리자를 배치해 수준별·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배드민턴장을 비롯해 각종 체육 기반시설들이 속속 확충되면서 코로나 이후 군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무료 숲교육 인기

영광군 산림교육서비스 접수

영광군이 물부산행복숲, 산림박물관, 테마 식물원에서 산림교육서비스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8회 진행됐으

며, 총 395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과 산악회, 단체 등 숲을 찾는 장년층으로 다양하다.

영광군 산림교육 서비스는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연령 및 계절별로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운영 위탁업체인

'행복숲'에서 진행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숲 해설가는 5명, 유아숲 지도사는 3명이다. 누구나 사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숲 해설·유아숲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은 물론 성인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숲 해설과 유아숲 교육에 많은 참가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